2027
Outlook

01

투자전략
Transition

Analyst 황수욱 soowook.hwang@meritz.co.kr
RA 박보경 pbg811@meritz.co.kr
Analyst 이상현 sanghyeon.lee@meritz.co.kr
RA 염승준 sj.yeom@meritz.co.kr

Contents

Summary	5
Part 1. 과도기의 혼란: Era of Capital Scarcity	7
Part 2. 2027년 트렌드: 투자 → 생산 Transition	27
Part 3. 한국시장 시나리오: 상고하저, 8,700pt	55
Part 4. 업종 및 스타일 전략	71



Summary

Transition

1 과도기의 혼란: Era of Capital Scarcity

- 과잉저축 → 투자의 시대로 전환과 혼란. 높아진 금리 레벨, 성장(g)과 비용(r)의 싸움에서 금리에 대한 판단 기준도 달라져야
- 익숙했던 유동성 시대(저축의 시대)보다 높아질 투자 난이도,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오르던 시기를 지나 신중한 투자판단 필요
- 급증하는 기업 부채 문제에 대한 걱정. 1) 누적된 정부부채와 인플레 문제 속 2) 조달 재원 자체가 부족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 미국 재정/통화정책 공히 AI 기반의 총공급 진작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 금융 시스템 개선을 해법으로 활용할 가능성

2 2027년 트렌드: 투자 → 생산 Transition

- AI 인프라 사이클 지속 여부는 1) 초과수요 지속, 2) 부채 감당 여력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
- AI 수요-공급 논리로 형성되는 GPU 임대료 기반의 수익성 vs 조달 금리를 비교할 때, AI 투자 사이클 유지 가능하다는 판단
- 2027년은 AI 투자 사이클 다음을 기다리는 과도기. AI 인프라 주식은 '현금흐름'이 핵심 변수가 된 Late Cycle이라는 인식
-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AI '투자' 다음 AI로 새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초점
- 과거 기술 사이클에서 Anthropic과 같은 차세대 주도주의 상장과 증명이 기존 주도주를 포함한 시장 추세 회복 트리거였음

3 한국시장 시나리오: 상고하저, 8,700pt

- AI 인프라 익스포저가 큰 한국시장이지만 Late cycle 주도 팩터는 저평가, 현금창출, 주주환원이라는 점에서 투자 매력 유효
- 과도기에서 다음 AI Early cycle 주도주가 아직 국내에 보이지 않은 점은 리스크. 내년 한국시장 상대매력은 상고하저 전망
- KOSPI 2027년말 타겟은 당사 이익 및 자본총계 추정에 기반, 12MF PBR 1.2배 8,700pt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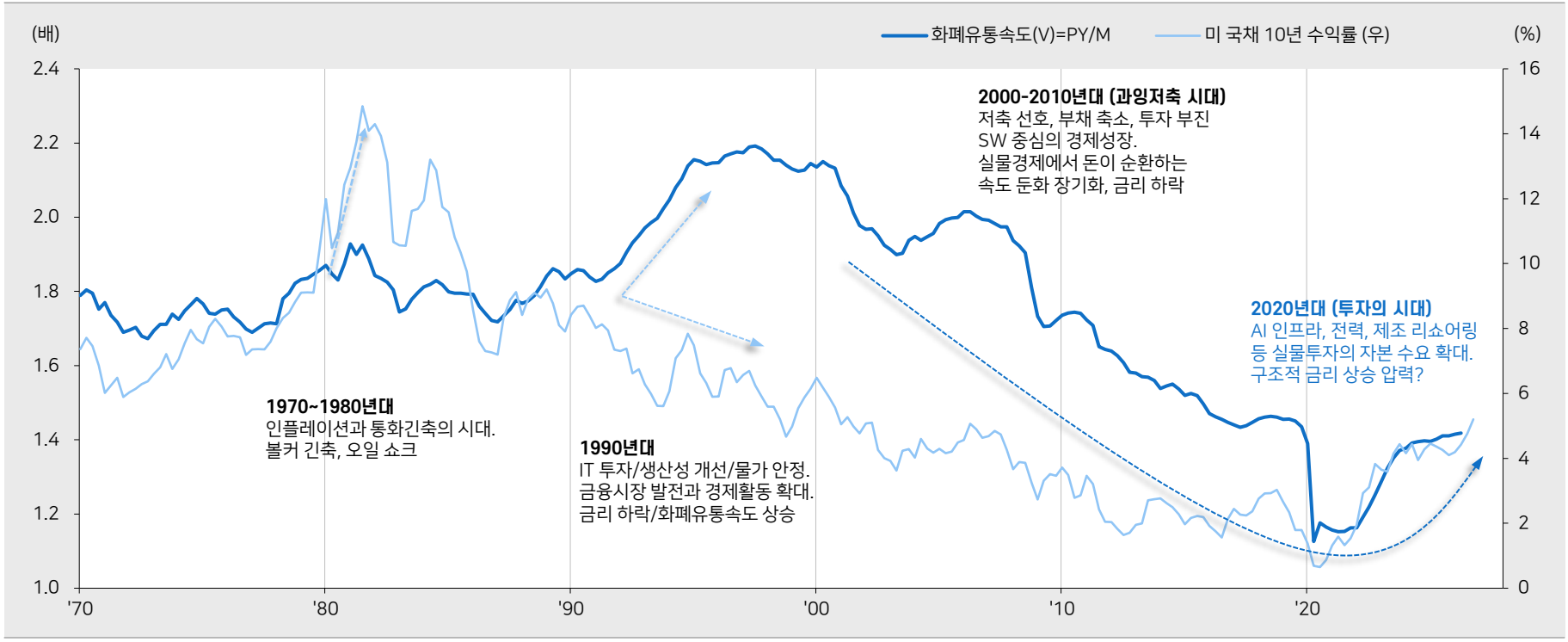
4 업종 및 스타일 전략: 반도체& 유틸리티 선호

- 2026년부터 코스피 이익 레벨이 바뀌었고, 그 이익이 현금(FCF)으로 남는 시장이 됨. 이익, 환원, 현금흐름, 저평가 팩터 부각
- 최선호 업종은 반도체·유틸리티. 차선호 업종은 건설/건축 ·운송·화학. WI26 업종 중 ① 이익(메리츠-컨센) ② FCF 기여 ③ FCF 상향 가속 ④ 배당 증가 (+ 2028E 조정 PBR 1배 미만) 조건 충족 업종
- 스타일 전략은 이익 상향과 환원 여력에 방점. '이익이 오르면서 배당을 늘리고도 현금이 남는 기업' 15개 종목 선정

[Transition 1] 과잉저축 → 투자의 시대로 전환과 혼란

- 2000-2010년대: 금리와 화폐유통속도 동시 하락. 실물경제로 자금 유입 제한, 경제성장 둔화와 금융시장(채권시장 중심) 자금 유입
- 2020년대: 화폐유통속도 상승은 실물경제로 자금 유입 시사, AI 인프라 투자가 유발하는 잉여자금의 실물경제 유입 재개 조짐

미국채 10년 금리와 화폐유통속도



자료: Federal Reserve,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익숙했던 유동성 시대(저축의 시대)보다 높아질 투자 난이도

- 성장이 뒷받침되어도 높아진 금리 레벨이 주는 위험자산 부담을 외면할 수 없음
  - S&P500 어닝스일드(PER의 역수)와 미국 10년 금리 레벨이 유사해지기 시작한 2023년 이후, 미국 장기금리는 PER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
  - 미국 10년이 어닝스일드 하단을 형성하는 추세, PER의 역수의 하단을 제한하는 것은 PER의 상단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
- 자금이 갈 곳이 생기면서 돈의 가격이 비싸짐. 위험자산 투자의 기회비용이 높아짐
  - 2010년 이후 전세계 주가지수(MSCI ACWI) 연평균 수익률 8.5% vs AI 데이터센터 평균 조달금리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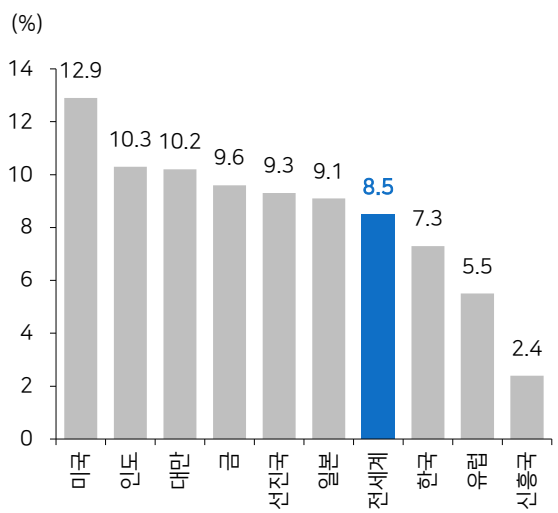
→ 주식, 채권, 원자재, 비트코인 등 모든 자산 가격이 동시에 오르던 시대는 지나간 것으로 생각함.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한 시대로 진입

S&P500 Earnings Yield와 미국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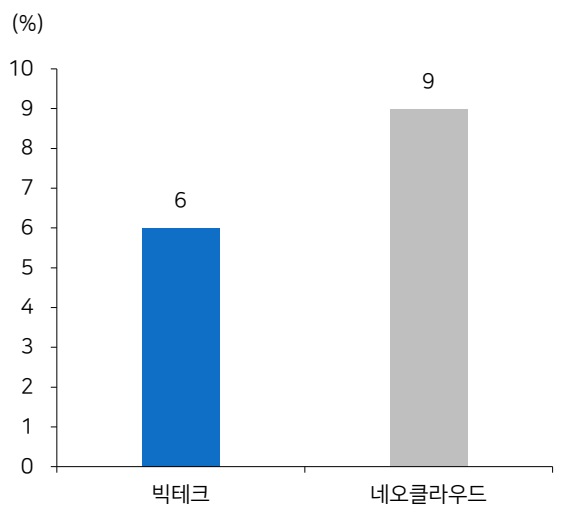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MSCI 지수와 금의 2010년 이후 평균 수익률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I 데이터센터 평균 조달금리



주: 빅테크 5.5~7.0%, 네오클라우드 7~11%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I 인프라 지속성은 수요-공급 논리 수익성/부채 비용 비교가 '판단 기준'

- 지난 4월 추정 당시 대비, 각종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요 데이터센터 임대사업자의 수익률이 개선된 것으로 추정
  - AI ROIC(투하자본수익률) 추정((매출액-OpEx-감가상각비)/투하자본)
- CSP의 B200 수익률 개선세가 가장 강한 것으로 파악되며, 구세대 GPU인 H100의 투자수익률도 개선된 양상
- 네오클라우드 역시 주력 모델(B200)과 구형 모델(H100) 모두 수익성 개선

GPU 1대 당 연간 임대수익률 추정 (2026년 10월)

GPU 당 Yield (달러)	CSPs		NeoClouds	
	H100	B200	H100	B200
연간 임대 수익	27,784	52,854	23,106	47,822
- 연간 OpEx	*4,057*	*5,304*	*4,280*	*5,595*
- 연간 감가상각 (5년)	*11,282*	*19,581*	*11,786*	*20,392*
연간 EBIT	12,444	27,969	7,543	21,835
CapEx	56,412	97,905	58,928	101,960
수익률 (영업이익 / CapEx, %)	22.06	28.57	11.95	21.42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GPU 1대 당 연간 임대수익률 추정 (2026년 4월)

GPU 당 Yield (달러)	CSPs		NeoClouds	
	H100	B200	H100	B200
연간 임대 수익	17,570	30,141	16,892	29,712
- 연간 OpEx	*2,874*	*3,757*	*3,193*	*4,173*
- 연간 감가상각 (5년)	*8,723*	*15,230*	*9,120*	*4,173*
연간 EBIT	5,973	11,154	4,579	9,675
CapEx	43,613	76,148	45,599	79,318
수익률 (영업이익 / CapEx, %)	13.70	14.65	10.04	12.20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판단 기준] 수익성 vs 부채비용 매트릭스; AI 인프라 지속 가능

- 당사의 AI 서버랙 임대수익률 모델을 기반으로 임대수익과 조달비용(금리)를 기반한 EBT 매트릭스 구성
- 하이퍼스케일러의 경우, 현재 수준의 CapEx 지출 및 임대료 하에서 지금보다 높은 조달금리 감당 가능하다는 판단
- AI 초과수요 상황임을 고려할 때, GPU 시간당 임대료는 쉽게 하락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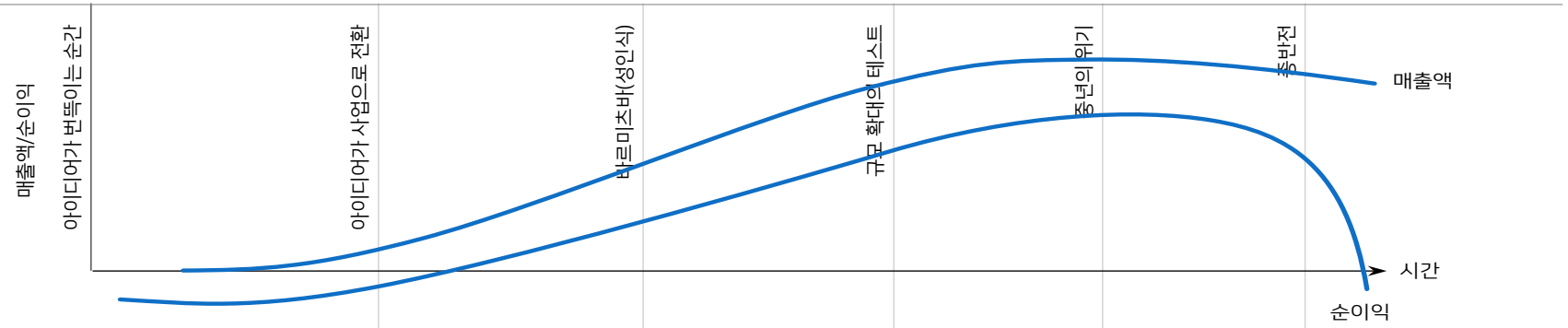
[CSP] GPU 당 법인세차감전이익(EBT) 매트릭스: 임대수익 x 조달비용의 함수

		조달금리 (%)								
	(달러)	3.0	4.5	6.0	7.5	9.0	10.5	12.0	13.5	15.0
B200 시간당 임대료 (달러)	3.5	-2,824	-4,292	-5,761	-7,229	-8,698	-10,167	-11,635	-13,104	-14,572
	4.5	4,319	2,850	1,382	-87	-1,556	-3,024	-4,493	-5,961	-7,430
	5.5	11,461	9,992	8,524	7,055	5,587	4,118	2,650	1,181	-288
	6.5	18,603	17,135	15,666	14,198	12,729	11,261	9,792	8,323	6,855
	7.5	25,746	24,277	22,809	21,340	19,872	18,403	16,934	15,466	13,997
	8.5	32,888	31,420	29,951	28,483	27,014	25,545	24,077	22,608	21,140
	9.5	40,031	38,562	37,094	35,625	34,156	32,688	31,219	29,751	28,282
	10.5	47,173	45,704	44,236	42,767	41,299	39,830	38,362	36,893	35,424
	11.5	54,315	52,847	51,378	49,910	48,441	46,973	45,504	44,035	42,567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다만 현재 핵심 지표가 '현금흐름'인 것은 AI 인프라의 late cycle 평가?

기업 사이클과 Narrative and Numb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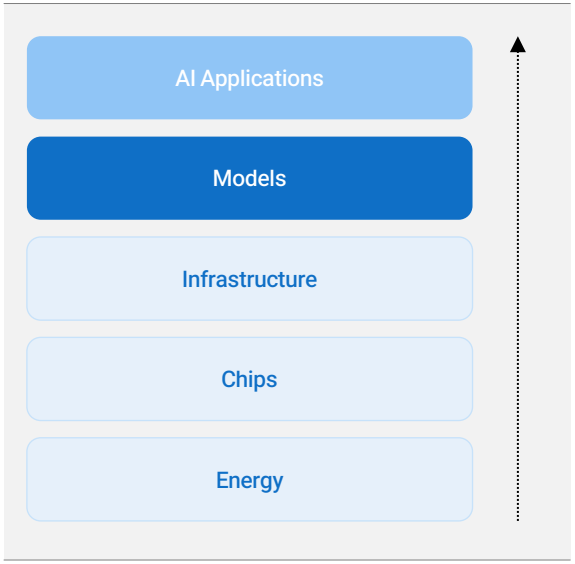
성장 단계	1단계 스타트업	2단계 유년기 성장	3단계 고성장	4단계 성숙기 성장	5단계 성숙기 안정	6단계 쇠락
설명	충족되지 않은 시장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사업 아이디어 탄생	아이디어를 잠재적 매출과 이익으로 바꿀 사업 모델 탄생	잠재적 매출이 현실 매출로 전환되면서 사업이 구축됨	손실이 이익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이 성장	새 경쟁자로부터 사업 보호, 새 시장 발견	시장이 줄어들면서 사업 규모가 축소
핵심 질문	제품 서비스 시장이 존재? 짐작되는 시장 규모? 생존할 수 있는가?	제품, 서비스의 사용 여부? 제품, 서비스를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는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유료로 사용할 사람들이 있는가? 규모 확대가 가능한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이익을 낼 수 있는가? 경쟁이 심해져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자산을 매각시 잔존가치? 투자자를 위한 현금흐름 상환 계획은 무엇인가?
가격결정 척도와 기준	시장 규모, 보유 현금, 자본 접근성	사용자 수, 사용자 집중 (EV/사용자)	사용자 몰입과 모델, 매출액 (EV/매출액)	순이익 수준과 성장 (PER, EV/EBIT)		현금흐름, 배당 성향, 부채상환비율 (PBV, EV/EBITDA)
이야기 vs. 숫자	전부 또는 대부분의 이야기	이야기가 숫자보다 중요	이야기와 숫자의 혼합	숫자가 이야기보다 중요		전부 또는 거의 숫자
가치 요인	전체 시장 규모, 시장 점유율, 목표 이익률	매출 성장 (그리고 매출 동인)	매출 성장과 재투자	영업이익률과 자본 수익률		배당 및 현금 상환, 부채비율
위험 요소	거시적 착각, 해당 시장 규모에 비해 기업들 전체적으로 고평가	엉뚱한 매출 동인을 중시하는 탓에 가치에 혼선	성장에 대한 착각, 성장 비용을 고려하지 못함	파괴되는 현실 부인, 지속 가능 이익을 위협하는 요소를 파악하지 못함		청산가치 누수, 자산 청산시에 회수 금액 비현실적 가정
전환	잠재력 → 제품		제품 → 매출액	매출액 → 이익		이익 → 현금흐름

자료: Aswath Damodaran, 『Narrative and Numbers: The Value of Stories in Business』

2027년은 AI 투자 → AI 생산 전환의 과도기(Tran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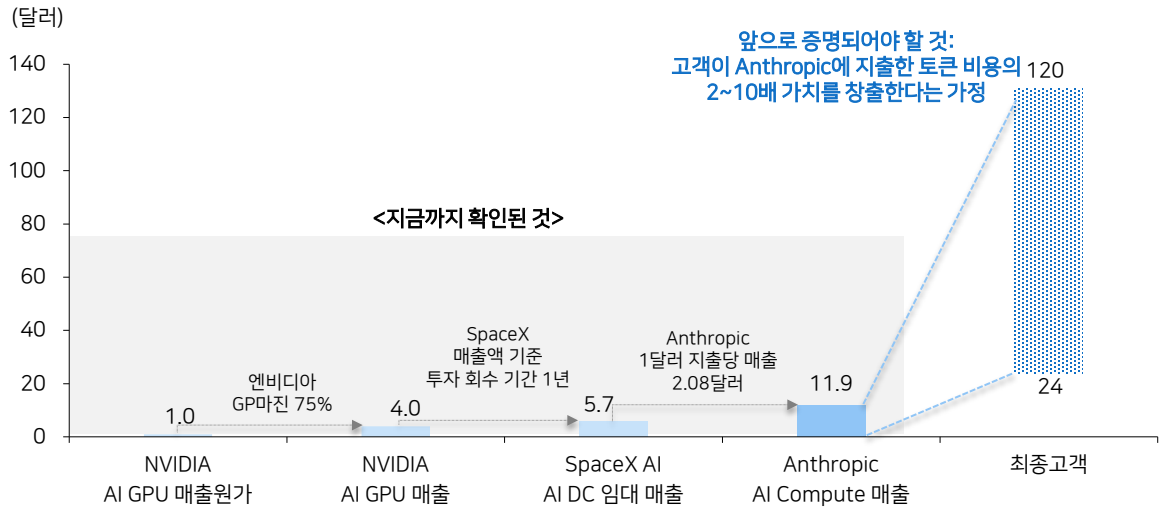
- 따라서 시장의 초점도 2027년을 지날수록 'AI 투자 → AI 생산/아웃풋' 관련한 레이어로 계속 초점을 옮겨갈 것으로 전망
- 지난 4년간 시장의 주도주는 AI 5단 레이어 중 하단 3개였음. AI 데이터센터-전력인프라-반도체 등 기자재가 주도했음
- 현재는 2층 AI 모델까지의 부가가치가 증명. AI 가치사슬을 분석하면, 1달러 지출(GPU)로 12달러 산출물(토큰)을 내는 것까지 확인한 셈
- 이제 시장의 요구는 이 다음 레이어, AI 토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 AI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의 증명이 필요
- 현재 위치는, 아직 AI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는 비즈니스가 보이지 않다는 점. 2027년은 그 과도기(Transition)임
  - 온디바이스AI, 로보택시, 피지컬AI 등이 이후 메가 트렌드라는 그림은 유효, 다만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과도기의 걱정

AI 5단 레이어: 상단의 수익화 증명 요구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I 가치사슬 계산: 지금까지 1달러 지출에 12달러 가치 창출 확인, 다음 AI 응용 레이어는 2~10배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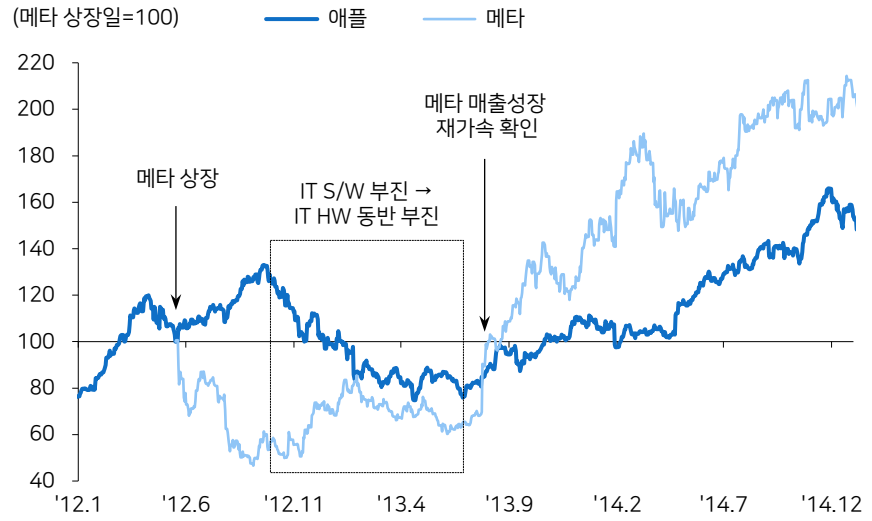


주1: Anthropic S-1, SpaceX S-1/A, NVIDIA FY2Q27 실적발표 자료에 기초함
자료: David Friedberg, All-In Podcast(2026.10.30) 논리 차용,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과거 메가 IPO: 차세대 기술 레이어 증명이 이전 레이어까지 끌어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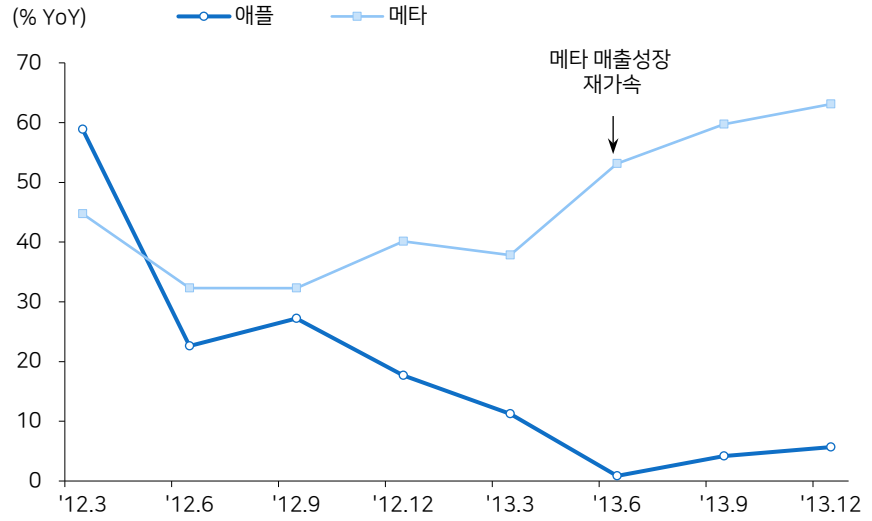
- Anthropic 상장의 함의는 스마트폰 사이클에서 메타 상장 사례를 통해 고민해볼 수 있겠음
- 2009년 애플의 스마트폰 출시 이후 2012년은 애플의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Late Cycle 인식
- 이 시기에 SNS로 모바일 인터넷 수요를 키웠던 메타가 상장함. 상장 직후 메타 매출 성장 둔화되며 주가도 부진
- 2Q13에 매출 성장이 재가속되며 주가 추세 반전. 이후 횡보하던 애플도 매출성장은 이전 사이클 대비 둔화되었으나 주가 추세 회복
- 다음 기술 레이어가 살아야, 이전 레이어도 함께 추세 회복 가능하다는 시사점
  – 현재로 대입하면, 향후 매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Anthropic의 매출성장률 재반등이 전체 시장 반등 트리거가 될 수 있음

스마트폰(IT 인프라) 확산 이후 SNS 산업(IT S/W 서비스)과 메타 상장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012년 이후 애플, 메타 매출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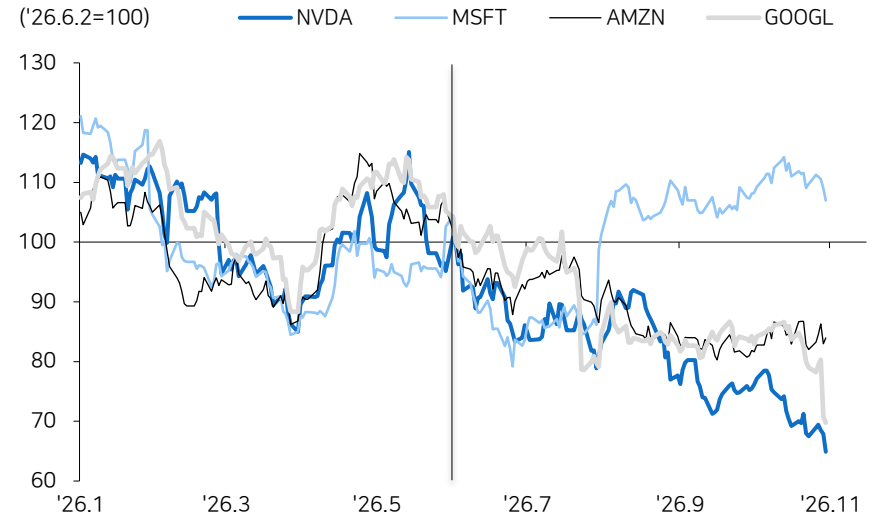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027년 하반기로 갈수록 Legacy AI vs Next AI 차별화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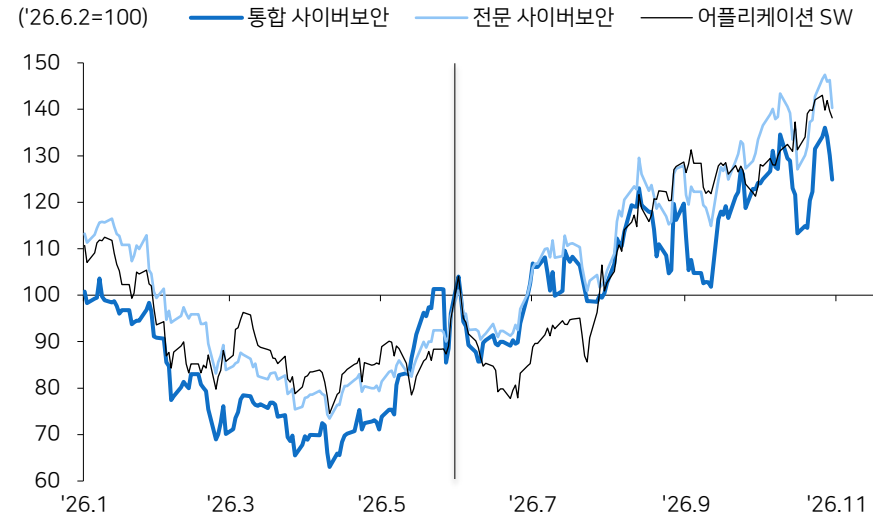
- 2027년 글로벌 차세대 AI 주도주로 주목해야 할 AI 모델, AI 모델, 애플케이션 레이어의 대형 기업들
  - AI 모델 레이어 빅테크의 성장 기대가 Legacy AI 인프라 주도주(NVIDIA, Amazon, Microsoft 등) 추세 회복에도 중요
- 이 외에 사이버보안, SW 레이어는 이미 올해부터 AI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추세 전환을 보여주고 있음
  - AI 트렌드가 끝난 것이 아닌, 지금은 주도주 전환 과정에서 걱정/우려가 혼재된 시기로 생각함

지난 4년간 시장을 주도했던 빅테크 밸류에이션 추세 하락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I 인프라 다음 레이어에 있는 비즈니스에서 밸류에이션 추세 상승 포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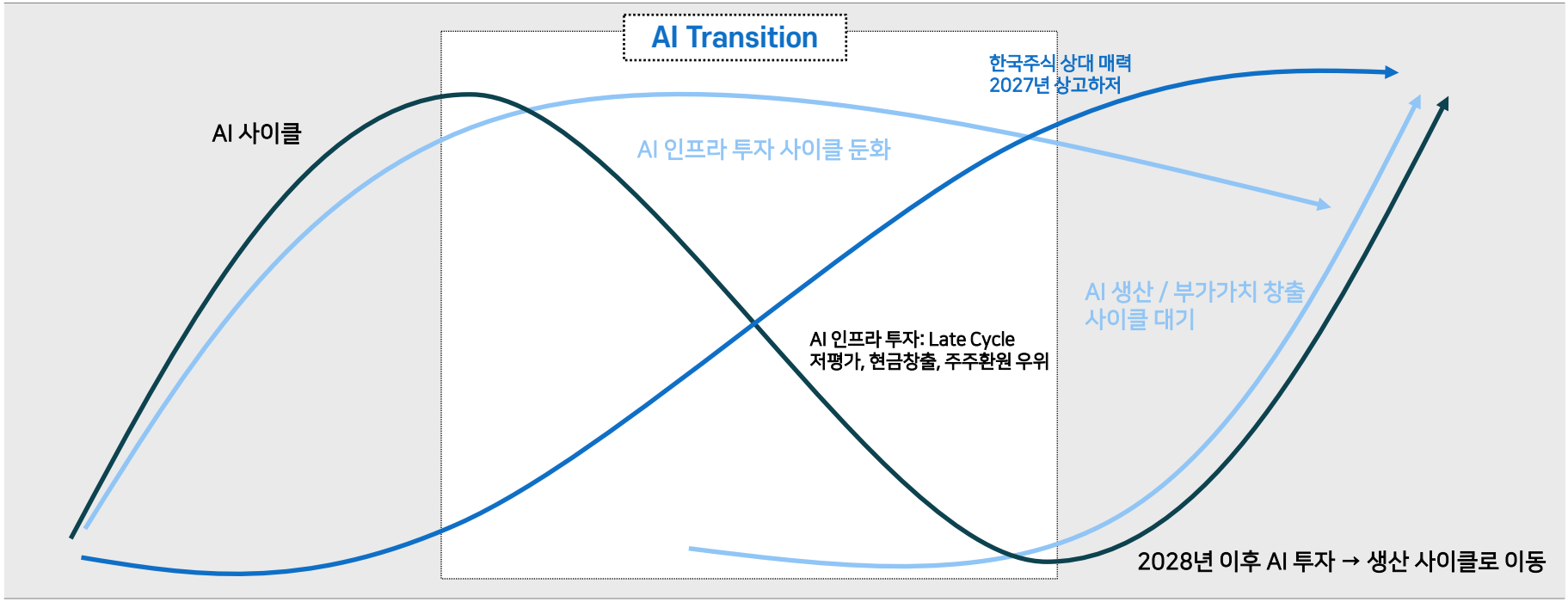


주: 통합 사이버보안(PANW, CRWD, ZS), 전문 사이버보안(OKTA, ZBRA, ESTC, S, QLYS, CVLT), 어플리케이션 SW(DOCU, IT, MANH, GTLB, APPF, ZETA, RNG)의 평균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한국시장 시나리오: 상고하저

-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AI 인프라 투자는 지속 가능하나 Late cycle로 인식. AI 생산, 부가가치 창출 관련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는 국면
- AI 인프라 익스포저가 큰 한국시장이지만 Late cycle 주도 팩터는 저평가, 현금창출, 주주환원 등이라는 점에서 내년 한국시장 투자 유효
- Late cycle 이후 새로운 AI Early cycle 주도주가 아직 국내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리스크. 2027년 한국주식 상대매력은 상고하저 전망

AI 사이클의 과도기와 한국주식 매력도 평가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027년말 KOSPI Target 8,700pt

- 2027년 연말 KOSPI target 8,700pt 제시, 연말 기준 Range는 7,250~9,400pt
- 당사 2028년 이익추정치 및 자본총계 전망치 기준 12MF PBR의 점진적인 회복 흐름 하에서 1.2배 가정(현재 1.09배)

2028E 자본총계(지배) 기준			PBR (배)											
		(pt)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자본총계 (조원)	컨센서스	5,000	3,912	4,564	5,216	5,868	6,520	7,172	7,824	8,476	9,128	9,780	10,432	11,084
		5,100	3,990	4,655	5,320	5,985	6,650	7,315	7,980	8,645	9,310	9,975	10,640	11,305
		5,200	4,068	4,746	5,425	6,103	6,781	7,459	8,137	8,815	9,493	10,171	10,849	11,527
		5,286	4,132	4,820	5,509	6,197	6,886	7,575	8,263	8,952	9,640	10,329	11,018	11,706
		5,300	4,147	4,838	5,529	6,220	6,911	7,602	8,293	8,984	9,675	10,367	11,058	11,749
		5,400	4,225	4,929	5,633	6,337	7,041	7,746	8,450	9,154	9,858	10,562	11,266	11,970
		5,500	4,303	5,020	5,737	6,455	7,172	7,889	8,606	9,323	10,041	10,758	11,475	12,192
	Meritz 추정	5,552	4,344	5,068	5,792	6,515	7,239	7,963	8,687	9,411	10,135	10,859	11,583	12,307
		5,600	4,381	5,112	5,842	6,572	7,302	8,032	8,763	9,493	10,223	10,953	11,684	12,414
		5,700	4,460	5,203	5,946	6,689	7,433	8,176	8,919	9,662	10,406	11,149	11,892	12,635
		5,800	4,538	5,294	6,050	6,807	7,563	8,319	9,076	9,832	10,588	11,345	12,101	12,857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업종 전략: 반도체 & 유틸리티 선호

- 5개 축으로 업종 점수화: ① 이익(메리츠>컨센) ② FCF 기여 ③ FCF 상향 가속 ④ 배당 증가 ⑤ 2028E 조정 PBR 1배 미만
- 최선호 업종(3개+PBR 1배 미만): 반도체·유틸리티
- 선호 업종(2개+PBR 1배 미만): 건설/건축 ·운송·화학

업종 스크리닝 매트릭스 (음영 = 해당 축 충족)

업종	① 메리츠-컨센 2027E+2028E (조원)	② 2027E FCF (조원)	③ FCF 상향 2026E → 2027E (조원)	④ 배당 증가 2027E/2028E	+ 조정PBR 2028E (배)	점수	판단
반도체	427.9	704.3	+344.9 → +599.5	8% / 6%	0.88	3	최선호
유틸리티	3.3	7.2	-1.5 → -1.5	40% / 15%	0.35	3	최선호
건설/건축	0.9	5.6	-0.6 → +0.7	18% / 7%	0.71	2	선호
운송	0.4	7.2	+0.4 → +1.5	4% / 4%	0.78	2	선호
화학	2.1	1.9	-4.1 → -2.1	16% / 16%	0.64	2	선호
상사/자본재	1.1	21.9	+0.0 → +3.2	25% / -1%	1.15	3	조건부
조선	2.1	16.9	+9.6 → +3.4	16% / 13%	1.22	3	조건부
IT하드웨어	1.6	1.1	-1.5 → -0.8	22% / 21%	3.17	2	조건부
에너지	-3.6	10.8	+6.8 → +5.4	2% / 4%	0.65	1	조건부
소매(유통)	0	3.4	+0.5 → +0.9	6% / 4%	0.38	1	조건부
자동차	-2.5	15.4	-2.7 → -4.4	6% / 5%	0.48	1	조건부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스타일 전략 → 종목 스크리닝: 두 가지 질문

- 종목 선택 기준. 두 가지 질문: ① 이익이 오르는가 + ② 배당을 늘리고도 돈이 남는가
- 현금 창출· 저평가는 참고 조건
- 유니버스 269 → ① 이익 상향 78 → ② 환원 여력 39 → 최종 15

스타일 전략: 투자 포인트 4가지

투자 포인트	질문	기준
① 이익 상향	이익이 늘고,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나	2027E 순이익 증가 & 3개월 추정치 상향
② 환원 여력	배당을 늘리면서도 아직 현금이 남아 있나	2027E DPS 증가 & 배당/FCF ≤ 50%
*(참고) 현금 창출	시가총액 대비 현금을 많이 버나	2027E FCF 수익률 ≥ 10%
*(참고) 저평가	주가가 그대로면 장부가 대비 싼가	2028E 조정 PBR < 1배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스타일 전략: 스크리닝 단계별 검토

단계	종목 수 (개)	기준
유니버스	269	KOSPI 시총 3,000억 이상 · 2027E 컨센서스 (비금융 243 + 금융 26)
① 이익 상향	78	2027E 순이익 증가 & 3개월 추정치 상향
② 환원 여력	39	DPS 증가 & 배당/FCF ≤ 50% (금융은 배당/순이익)
최종	15	추정치 상향률 순, 업종당 최대 3종목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이익이 오르고, 돌려줄 여력이 있는 기업

- 조건: ① 2027E 순이익 전년대비 증가 & 12MF 순이익 3개월 추정치 상향 + ② 2027E DPS 전년 대비 증가 & 배당이 FCF의 50% 이하
  → 추정치 상향률 순 15개 종목 선별, 업종당 최대 3종목

스타일 전략에 근거한 종목 스크리닝: 이익 상향 & 환원 여력 (2026.10.30 기준)

코드	종목	업종	시가총액 (십억원)	12MF 순이익 추정치 3M Chg (%)	순이익 2027E 증가 (%)	DPS 증가 (%)	배당/FCF (%)*	2027E FCF 수익률 (%)	2028E 조정PBR (배)	2027E 배당수익률 (%)
A003160	디아이	반도체	1,104	112.3	25.4	19.4	14.4	9.1	2.4	1.3
A028050	삼성E&A	건설/건축	12,093	20.9	27.1	19.0	19.9	9.1	1.7	1.8
A000660	SK하이닉스	반도체	1,035,838	15.8	46.1	111.4	12.0	29.6	0.9	3.5
A000990	DB하이텍	반도체	4,002	13.5	22.6	13.5	15.0	11.1	1.1	1.7
A000640	동아제약	건강관리	585	11.4	21.1	0.0	11.5	18.0	0.4	2.1
A001120	LX인터내셔널	상사/자본재	1,562	9.0	9.9	0.0	35.7	16.1	0.5	5.7
A306200	세아제강	철강	338	8.5	11.1	7.3	29.2	18.7	0.2	5.5
A010120	LS ELECTRIC	기계	22,440	8.1	50.7	30.7	46.1	2.0	5.5	0.9
A088350	한화생명	보험	3,574	7.5	15.1	58.0	18.0	0.0	0.2	3.8
A192820	코스맥스	화장품/의류	2,803	7.5	25.4	11.1	35.6	4.6	2.7	1.6
A294870	IPARK현대산업개발	건설/건축	1,592	6.8	44.7	39.9	25.5	26.2	0.4	6.7
A031430	신세계인터내셔날	화장품/의류	348	6.3	32.7	17.6	26.3	19.9	0.4	5.2
A028670	팬오션	운송	3,117	6.2	7.6	8.2	19.5	18.6	0.5	3.6
A105630	한세실업	화장품/의류	327	5.4	25.9	3.5	45.7	16.6	0.4	7.6
A229640	LS에코에너지	기계	1,499	5.3	18.5	10.3	22.3	2.6	4.1	0.6

주: 1) 해당 내용은 계량적 분석에 근거한 의견으로 당사 투자 의견과 다를 수 있음
2) KOSPI 시총 3,000억 이상 기업 중 ① 2027E 순이익 YoY〉0 & 12MF 순이익 3M Chg〉0, ② 2027E DPS YoY〉0 & 배당/FCF〈50% 를 동시 충족하는 기업 중 12MF 순이익 3M Chg 상위 15개 종목 선별
3) *금융은 배당/순이익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